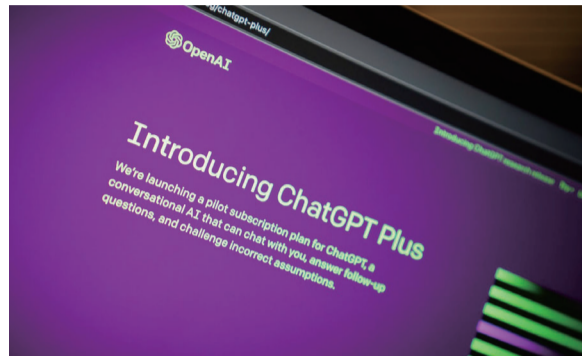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과제·소통·집필 못하는 게 없는 AI...” Chat GPT 열기

최근 사람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AI) 챗봇’이 화제다. 그 중, 미국 인공지능회사 Open AI가 내놓은 대화형 AI ‘Chat GPT’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벌써 구글의 초급 개발자 입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심지어, 이루다 등 기존 채팅 AI에 익숙했던 많은 이들은 Chat GPT의 정제되고 통찰력 있는 대담에 충격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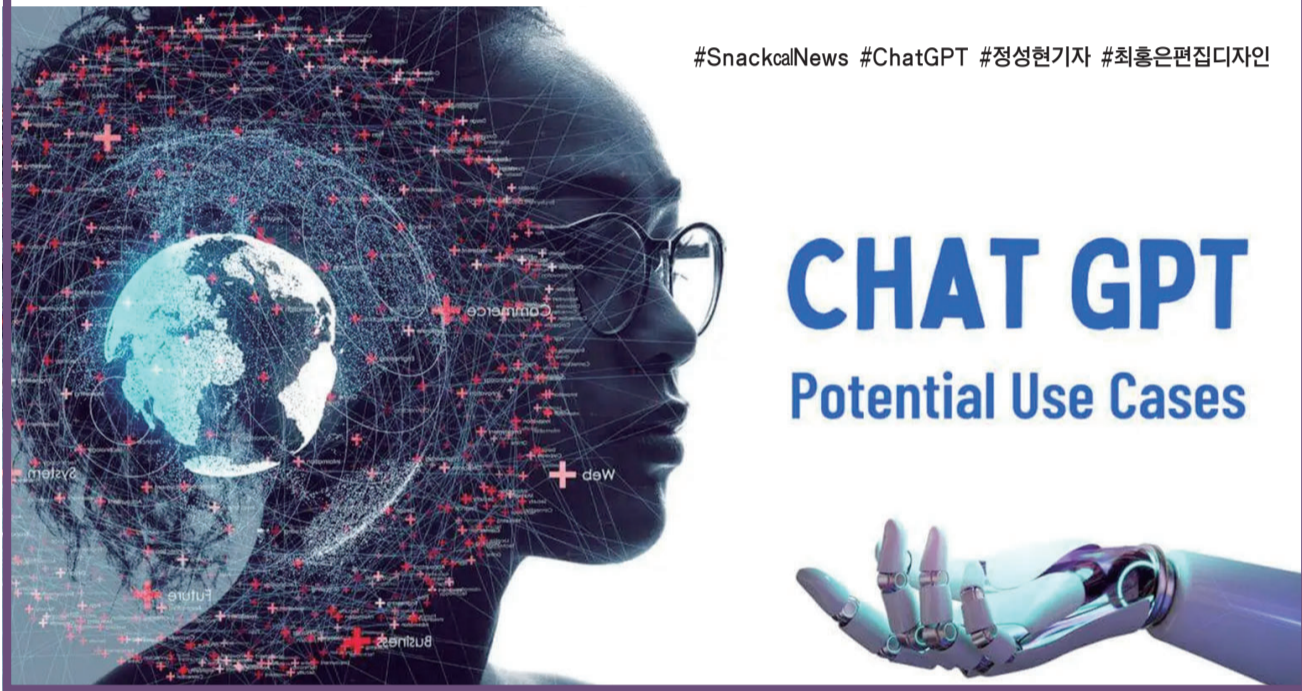
Chat GPT는 사람의 뇌 신경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인공신경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I다. 사람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췄고, 저장된 방대한 지식을 활용해 대화, 연설문, 시 등 여러 형태의 언어행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남일보의 최신 스낵뉴스를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Chat GPT는 해당 소식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전남일보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스낵뉴스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식이다. 한 명의 훌륭한 비서이자 친구 역할을 해준다. Open AI는 지난 2015년 와이 콤비네이터(Y Combinator) 회장 샘 알트만(Sam Altman)이 알론 머스크 등과 함께 설립한 인공지능 회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화 1조원 이상 투자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현재 Opne AI의 Chat GPT는 출시 40일 만에 사용자가 1000만명을 넘었고 2024년 예상 매출은 무려 약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Chat GPT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이상, 상승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Chat GPT 사이트 모습.

#SnackalNews #ChatGPT #정성현기자 #최홍은편집디자인

CHAT GPT Potential Use Cases



1004섬 신안군 ‘해양문화 선도’ 기대감

기고

강성곤

신안문화원 부원장



신안군은 국내 섬 전체 30%를 차지하는 1026개로 서울 22배가 넘는 바다와 섬을 보유한 생물권 보존지역이다.

선사시대 이전 유물인 패총과 고인돌, 선돌 등의 신석기와 청동기시대를 넘어 석실고분 등 유물이 출토된 고대 해상세력 근거지다.

고려 왕건도 견제했던 압해도 출신 능창(수달)장군의 해상세력과 몽골군을 물리친 압해도의 역사는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섬사람들의 자부심이다. 조선 초기 공도정책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삼별초의 저항지로 1623년 인조가 고모 정명공주(홍씨 결혼)에게 혼수품으로 내주던 토지를 333년간 투쟁 끝에 되찾은 게 하의3도 농민운동이다. 농민운동사 불멸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는 ‘암태도 소작쟁의’로 연결되면서 대항일운동의 농민항쟁에 불을 지피기도 한 곳이다.

신안군에는 세계가 인정한 5대 자원이 있다. 바로 △천재화가 김한기 △노벨평화상 김대중 △AI바둑천재 이세돌 △보라의 우량자원 퍼플섬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신안갯벌이다. 지하체에서 세계 자원을 5개 이상을 보유 하는 곳은 국내 유일하며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다.

국내 최초 ‘버스공영제’를 실시해 교통약자 권익에 우선하고 국내 최초 해와 바람을 지역자원화해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개발이익공유제’를 실시해 농어민기본소득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생태계의 보고로 블루카본을 품고 있는 17조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신안갯벌은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존본부’를 유지해 세계인의 자연유산이 됐다. UNWTO(세계유엔관광기구)가 선정한 세계최우수관광마을과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의 별 본상에 빛나는 퍼플섬에는 연간 100만명이 다녀가고 있다. 사라져 가던 공간이 보라색 하나로 세계인의 보라가 된 셈이다.

남미 칠레의 산티아고를 출발한 순례길은 12사도 섬티아고로 순례의 마무리가 되는 성지순례가 됐다. 역시 1년간 10만명이 다녀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세계5대 갯벌에서 생산된 전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의 품질을 뛰어 넘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선정됐다. 전국 생산량 75%로 연간 550억원의 소득을 신안왕새우로 브랜드화 한 새우는 전국

생산량 52%로 연간 6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김 수출 1위 기업을 포함 550개 어가의 김 생산이 연간 600억원, 섬초, 새우젓갈, 홍어와 민어, 병어와 낙지 등 수산자원의 고소득과 힐링의 공간으로 해양시대를 선도하며 젊은 이들의 귀촌 귀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해와 바람이 주는 재생에너지는 국내 최고 양질의 우량자원으로 8.2Gw 해상 풍력과 3Gw 태양광이 완성이 되면 연간 6000억원의 소득으로 1인당 매월 50만원의 농어민기본소득이 제공된다. 인구 7만~8만명 이상의 해상도시로서 지방성장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됐다.

흑산도 신안1004공항이 완공이 되고 크르즈호가 사계절 꽃피는 1도 1뮤지엄의 생태 풍광도 자랑스러운 공간이 된다.

해양문화는 도전의 상징이며 해양문화의 발전이 곧 인류의 미래다.

문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양문화교육이 절실하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적 사고와 해양적 사고는 해양문화의 탁월한 가치다. 신안군은 해양실크로드를 통해 지구촌의 미래를 주도하고 대한민국 성장을 선도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군민의 참여만이 지방상생을 주도하며 해양문화주권의 해양중심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고 |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에 부쳐



전 세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에너지 전성,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은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간 양극화, 소모적인 갈등,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모두는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모두는 더욱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런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제20대 대통령과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지방시대의 환경은 조성되었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경쟁력을 제고를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과 실천계획을 두고 고민하는 시기이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나주SRF, 나주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운용 등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과 같은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정부간 관계에서 협력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개발 등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현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사명도 가져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집단지성의 요체인 광주·전남연구원의 경우 그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연구를 통하여 지구촌의 변화와 대한민국이 안고 고질병 속에서 있는 지역주민의 삶과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화된 연구원으로 각각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정부의 출연연구기관인 연구원의 경우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성과 비전, 위상에 부합하는 핵심 연구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연구를 설립할 경우, 시공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정책들에 대하여 소신있는 연구나 지역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연구 및 권역내 기

초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적 유기적 협력체제의 구축 및 맞춤형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상생협력과제나 갈등해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두 광역단체장이 수시로 소통하거나 상시적 협력모임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지역 내 연구기관간 구심적 역할을 통한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등 연구원이 지역의 연구기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가칭) 광주연구원이나 전남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하 연구기관, 대학, 국책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및 융복합적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수도권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기능이 특화된 광역도시로서의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런 점에서 미래를 선도할 도시정책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상생연구들을 수행할 대도시 맞춤형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원에 대한 책임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연구원의 분리는 연구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을 통해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출연연구기관인 연구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은 이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존재한다. 물론 연구원이 분리 운영될 경우 집행부의 과도한 관리로 연구원이 용역화정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의 자율성이나 중립성은 의회가 행정감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연구원이 상생발전의 성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황을 냉철히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원 운영을 통하여 광역정부간 실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해가 상충되는 광역정부간에 상호 상생발전의 취지에 부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성과를 광주시정과 전남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